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조선인민군 서부전선 기계화타격집단 장갑보병 구분대들의 겨울철도하공격연습을 조직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직접적인 발기에 따라 조선인민군 서부전선 기계화타격집단 장갑보병구분대들의 겨울철도하공격연습이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겨울철도하공격연습을 조직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감시소에서 아군의 기도와 《적》군의 기도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연습을 개시할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시였다.

전투지대가 돌파당한 《적》들은 폭이 넓은 강의 자연계선을 리용하여 방어를 조직하고 역량과 기세를 집중함으로써 공세적인 방어행동으로 아군기계화타격집단의 공격을 좌절시키고 차후작전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려고 발악하였다.

기계화타격집단의 자행포들이 주체적인 포병화력타격전법으로 《적》의 거점들에 강력한 포사격을 들이댄데 이어 전투원들의 과감한 습격행동이 진행되었으며 선전대가 《적》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곳으로 얼음도하하여 강상의 섬에서 배수 방어하는 《적》들을 소멸하고 방어계선들을 순식간에 장악하였다.

이어 전진보장구분대들이 뜰다리를 비롯한 각종 도하기재들을 리용하여 기계화타격집단 구분대들의 도하를 성과적으로 보장하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황병서 조선인민군 차수와 인민무력부장인 현영철특공대장이 선두장갑차와 자행포에서 도하



전투를 지휘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혁명군대의 지휘관들은 빨찌산지휘관들처럼 돌격의 제일선, 원수격멸의 맨 앞장에 서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싸움준비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지휘관이 《나를 따라 앞으로!》가 아니라 《돌격 앞으로!》의 구령만을 치게 되면 백날, 천날이 가도 싸움준비를 완성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지휘관의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이 전투훈련장에서 높이 울려야 한다고 하시였다.

실전을 방불케 하는 도하장은 불도 가니마냥 끓어번지였으며 아군기계화타격집단은 《적》진에 노도같이 진격하

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훈련을 지도하시면서 산과 강하천이 많고 사계절특성이 다 다른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적, 기상기후적조건이 군사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고 하시면서 오늘과 같은 계절적영향을 극복하기 위한 실전훈련을 강도높이 진행하여야 그 어떤 자연지리적, 기상기후적조건에 구애됨이 없이 적들을 전격적으로 섬멸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인민군대에서는 앞으로도 장마철이든 겨울철이든 계절에 관계없이 우리 나라 군사행동지대의 특성에 맞는 전법과 훈련방법을 부단히 연구하여 모

든 부대, 구분대들이 맞닥뜨리는 강하천과 산악지대들을 단숨에 극복할수 있는 실전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서부전선 기계화타격집단 장갑보병구분대들의 겨울철도하공격연습이 끝난 다음 훈련의 우열함을 평가, 지적하시고 오늘 훈련이 당의 군사전략적방침 관철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인민군대에서 이런 훈련을 자주 조직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올해 인민군대에서는 훈련에서 형식주의, 고정격식화를 배격하고 내용과 형식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훈련의 질을 높이는데서 전변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강력한 공격이자 철통같은 방어라고 하시면서 무서운 공격능력을 갖추고있어야 적들이 최전연전방 우리의 눈앞에서 줄망스럽게 놀아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인민군대에서 백두산훈련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모든 군인들을 실전능력을 갖춘 일당백의 싸움군으로 키우고 고도의 격동상태를 유지하여 침략자들이 감히 신성한 우리 조국강토에 선불질을 한다면 무자비하게 격멸소탕하고 반미대결전의 승리의 전통을 빛나게 이어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근위 제1항공 및 반항공사단 관하 추격기, 폭격기련대들의 비행전투훈련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직접적인 발기에 따라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근위 제1항공 및 반항공사단관하 추격기, 폭격기련대들의 비행전투훈련이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훈련에 앞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관인 최영호 항공군상장과 참모장인 최학성 항공군소장을 당중앙위원회청사로 부르시여 직접 비행항로와 좌표들을 짚어주시며 비행전투훈련진행순차와 방법 등 오늘 진행할 비행전투임무를 하달하시였다.

실전을 방불케 하는 급박한 한초한초가 흐르는 속에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참모부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주신 비행전투임무를 신속히 관하 근위 제1항공 및 반항공사단에 하달하고 훈련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비행훈련을 지도하시기 위하여 비행장에 나오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현지에서 훈련과 관련하여 직접 하달하신 비행전투임무수행을 위한 항공 및 반항공군의 결심을 청취하시시고 비행련대들에 출격명령을 주시였다.

먼저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타격을 기도하는 적공중비적들의 해외발진기와 적함선집단을 가상한 목표에 대한 탐색과 강력한 타격이 짧은 시간안에 련속적으로 진행되였다.

우리 당의 전투명령이라면 돌아올 연유대신 폭탄을 만적재하고 구름속 천리, 불길속 만리라도 뚫고나가 침략자들의 본거지들을 무자비한 징벌타격으로 말끔히 소탕해버릴 일당백불사조들의 결사정신이 만장약된 은빛날개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지적해주신 항로를 따라 멸적의 비행운을 새기며 《적》 목표를 무자비하게 즉탕쳐놓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비행사들이 습격전투임무를 훌륭히 수행한 정형을 보고받으시고 역시 근위부대가 다르다고, 승리의 자랑찬 년륜을 아로새겨온 근위부대 전투비행사들이 지적해준 항로를 따라 정확한 시간에 생소한 목표를 탐색하고 습격을 맵시있게 해제였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미지목표에 대한 탐색과 습격임무를 수행한 영웅한 붉은 매들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지켜보시는 활주로우에 가볍게 내려앉았고 《적》 기계화부대집결처에 대한 항공정찰임무를 정확히 수행한 추격

기도 뒤따라 멋들어지게 착륙하였다.

다음으로 우리의 령공을 침입한 《적》 공중비적들을 격추하기 위한 기간 자유공중전투가 진행되였다.

공중경계와 공중매복비행임무를 수행하던 아군추격기들은 《적》의 전투폭격기들을 먼거리에서 포착하고 재빠른 기동으로 속도와 고도, 방향을 부단히 바꾸며 꼬리를 사리는 《적》기를 따라물고 치렬한 공중전투를 벌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자유공중전투를 지켜보시면서 당의 비행훈련제일주의 구호를 높이 들고 훈련에서 형식주의, 고정적식화를 배격하고 내용과 형식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훈련의 질을 높이는데서 전변을 가져와야 한다고 하시면서 훈련을 실전에 접근시켜 진행할데 대한 당의 방침관철에서 전군의 모범을 창조하도록 하자는데 이번 훈련의 의의가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다음으로 특수기교비행이 진행되였다.

지심을 구르는 천둥소리와 함께 시벨진 불줄기를 뿜으며 대지를 박차고 구름속을 뚫고 솟구쳐오른 영웅한 전투비행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안겨주신 담력과 배짱으로 평시에 련마해온 자기들의 조종술을 원수님앞에 뽐내려는듯 자랑스

럽게 상공을 통과하며 배면비행, 90° 측면비행, 횡전과 초저공비행 등 기교동작들을 펼쳐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추격기비행사들이 비행기를 정말 잘 탄다고, 추격기를 손바닥놀리듯 자유자재로 조종하는데 정말 볼만 하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이어 녀성추격기비행사들의 훈련도 보아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추격기비행사로 전환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불리한 일기조건에서 단독항로비행과 생소한 비행장에서의 착륙을 남자들이 못지 않게 잘 하였다고 못내 대견해하시면서 조선녀성의 기개를 다시 한번 과시한 영웅조선의 효녀, 훈련영웅들이라고 높이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녀성추격기비행사들이 당이 안겨준 담력과 배짱으로 앞으로 더 많이 훈련하여 꼭 최우수비행사들이 되여야 한다고 당부하시면서 또 한번 고향의 부모들과 인민들이 기뻐하게 널리 소개하고 내세워주자고 하시며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이 땅에선 모든 꿈 이루어지리

오늘 공화국의 거리와 마을, 가정들과 일터마다에서는 노래 《조국찬가》가 널리 불리워지고있다.

군대와 인민의 심장에서 울려나오고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애국의 마음들에 불을 달고 열정을 더욱 치솟게 해주는 《조국찬가》.

사랑하는 어머니가 첫걸음마 떼여준 정든 고향 집처럼 조국이여라...

들으면 들을수록 그 뭐라 표현할길 없는 숭엄함이 가슴속에 짝 차오름을 금할수 없다. 조국이란 무엇이던가.

고향마을 정든 집이던가, 그리운 얼굴들이던가.

인간에게 있어서 조국보다 더 귀중하고 신성한것은 없다.

하기에 인류문화사의 갈피를 돌이켜보면 조국에 대한 예술작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으며 세계적인 명작들중에서도 조국주제의 작품들이 가장 아름다운 별무리로 빛을 뿌리고있다.

노래 《조국찬가》는 오늘날 공화국에서 사람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며 제2의 애국가로 널리 불리우고있다.

조국에 대한 숭고한 감정이 그 어떤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

라 진실한 생활세부들로 누구나 알기 쉬운 시어들로 형성된 가사는 되새겨볼수록 솟구치는 애국의 감정과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의 걱정을 승화시키며 깊고깊은 여운을 안겨주고있다.

지난해 단마르크에서 진행된 예술공연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돌아와 기자에게 한 금성학원 학생의 말이다.

《우리의 첫 공연은 〈조국찬가〉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데 글씨 객석을 보니까 단마르크사람들이 〈조국찬가〉의 선율을 외우면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조국찬가〉야말로 외국인들도 순간에 감동시키는 진짜 명곡,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태어난 훌륭한 송가로우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북유럽땅에서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선군조선의 현실을 펼쳐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노래를 온 세상에 소리높이 불렀습니다. 이 노래를 더 높이 부르며 우리의 모든 꿈 이루어지는 어

머니조국을 더욱 빛내어나가겠다는것이 우리 모두의 심정입니다.》

이들의 심정이자 지금 온 나라 인민의 애국의 마음이다.

누구나 창조와 건설로 약동하고 영광과 행복으로 가슴벅찬 오늘의 현실을 보면 불수록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이민위천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이 땅우에 기어이 사회주의만복이 꽃피는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시려 현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로고와 헌신의 자욱자욱을 되새겨보고있다. 몸소 시공주가 되시고 설계가가 되시어 형성안만 해도 백십여차례나 지도해주시며 퇴약별 내려쬐이는 무더운 낮에도, 깊은 밤, 이른 새벽에도 건설현장을 찾으시어 인민들의 문화휴식터로 완공시켜주신 문수물놀이장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인민사랑을 다 전해준다.

쏟아지는 비에 옷습이 젖는 것도, 신발에 흙이 묻는것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옥류아동병원건설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며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

나하나 풀어주시고도 못다 주신것이 있으신듯 입원실마다에 TV와 랩동기를 놓아주자고 뜨겁게 말씀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삼삼하다.

야영소를 여러차례나 찾아주시고 나라의 귀중한 보배들인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가울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이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에 떠받들려 세상에서 으뜸가는 야영소로 일떠선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류경구강병원과 미림지구에 일떠선 미림승마구락부며 사회주의문명국상징의 하나인 마식령스키장에도, 로동자호텔, 로동자궁전으로 불리우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에도, 완공된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유자살림집과 위성과학자주택지구에도 그이의 위대한 헌신의 자욱이 력력히 아로새겨져있다.

이 땅에 이루어진 꿈같은 현실들은 인민들에게 이 세상 부러운것이 없을 모든 행복을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절대불변의 신념과 뜨거운 사랑이 낳은 거창한 창조물들인것이다.

인민이 제일 바라는것은 이 땅우에서, 이 하늘아래서 자기가 소원하던 모든것을 이루는것이다.

인간이 조국을 사랑하는것은 조국에 자기의 모든 꿈을 없었기때문이다.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어 떳떳하게, 인간답게 살고싶은 녀원,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환경에서 서로서로 화목하고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살고싶은 소망, 후손들의 운명에 대한 근심걱정이 없이 살고싶은 소원...

인민은 이 꿈으로 조국과 자기의 운명을 하나로 련결시킨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조국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부유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것이다.

인민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사랑할수 있는 진정한 조국은 과연 어떤 나라인가.

인민의 모든 꿈을 이루어주는 나라이다.

그래서 노래 《조국찬가》를 들으며 누구나 그토록 격정에 젖어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만 계시면 공화국은 영원히 굳건하며 인민의 모든 리상과 꿈은 이 땅

우에 반드시 찬란한 현실로 펼쳐지리라는 진리를 심장깊이 절감한 인민들은 이 노래를 부르며 애국의 열정을 끝없이 바쳐가고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는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총공격을 들이대어 인민의 모든 꿈과 리상이 실현되는 사회주의문명강국을 하루빨리 앞당겨오는 이해의 지름길을 밝혀주는 라침판이고 전진과 투쟁의 기치이다.

지금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관철하기 위한 이해의 장엄한 진군길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그 길에서 사람들속에 애국의 열정을 뜨겁게 불태워주며 높이 울리고있는 노래 《조국찬가》.

인민의 열렬한 애국의 마음을 담은 노래,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애국가 《조국찬가》는 영원토록 높이높이 울려퍼질것이다.

창공에는 우리 국기 무궁토록 나뭇기고

이 땅에선 모든 꿈 이루어지리

... 본사기자 김준경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유자살림집



연풍과학자휴양소



마식령스키장



교육을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으로

교육은 나라의 장래운명과 직결되어있는 중요한 사업이다.

새 세대들을 어떻게 키우는가에 따라 민족의 흥망이 결정된다.

숭고한 조국관, 미래관을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께서는 새 세대들을 억만금의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나라의 귀중한 보배, 희망과 미래의 전부이라고 하시면서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떠메고나갈 역군으로 키우도록 하는데 크나큰 로고를 기울이고계신다.

강성국가건설을 다그치고 사회주의문명국의 새로운 개화기를 열어나가자면 교육사업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켜야 하며 그러자면 교육내용과 방법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하시며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회의에서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법령을 발표하도록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중등일반교육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세워 인재육성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킬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도록 하신 그이의 보살핌속에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성과적으로 시행할수 있는 교육체계가 확립될수 있었다.

오늘날 교육발전은 국가의 중요한 전략적문제로서도 인재양성에 유리하게 학제를 늘이는 사업이 중요한 문제라고 인정은 하면서도 투자가 많이 드는 것으로 하여 그것을 어쩔수 없이 장기적인 전략적기간에 수행하여야 할 사업으로 결정하는것이 판례로 되고있다.

그러나 후대들을 위한 사업에 국가의 제일중대사로 내세우시고 후대교육을 중시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령도에 의해 공화국에서는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제도가 태어날수 있게 된것이다.

후대교육사업을 나라의 희망을 좌우하는 중대사로

보시고 새 세대들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손길과 정력적인 령도에 의해 후대사랑의 위대한 력사가 펼쳐지고있다.

2012년 설명절을 맞으며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께서는 원아들을 나라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기 위해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도록 온갖 은정어린 조치를 다 취해주시고 새롭게 일떠선 창전소학교를 찾으시어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하여 후대들을 훌륭히 키우도록 할데 대해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양건축종합대학의 명예총장이 되여주신 이야기, 새 주력에 입사한 교육자가 생을 방문하시고 끄거운 사랑을 부어주시던 감동깊은 화폭, 지식경제시대, 두뇌전의 시대인 오늘 조국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과학인재들을 키우는 교원, 연구사들을 위해서는 아가울것이 없다고 하시며 교육자

살림집들을 건설하도록 하신 그 은정, 불후의 고전적로작 《새세기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지》를 발표하시어 새세기 교육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신 그이의 정력적인 령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이의 미래사랑, 후대사랑이 얼마나 열렬한것인가를 잘 보여주는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께서는 올해신년사에서 사회주의 문명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면 교육부문 일군들의 역할과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관심을 높여 새세기교육혁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인재강국화실현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교육을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으로 틀어쥐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공화국은 오늘 교육의 나라로 더욱 빛을 뿌리고있다.

본사기자 김강철

숭고한 인민사랑의 화폭을 펼치며

주체64(1975)년 12월 어느날이였다.

그날 한 일군을 만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그의 가족형편에 대해서도 알아보시였다. 큰 자식이 대학생이 되었다는것을 알게 되신 그이께서는 환히 웃으시며 아이들이 자라는것을 보면 혁명하는 보람이 있다고, 아무리 사업이 바빠도 자녀들의 생활과 교양에도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우리의 후대들을 잘 키워야 혁명의 대를 굳건히 이어나갈수 있다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왕》에 대한 법부터 채택하도록 하자고 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의 뜻을 미처 깨닫지 못한 그 일군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있었다.

이윽고 인민적인 시책은 언제나 자라나는 어린이들, 우리 혁명의 미래인 후대들을 돌보아주는것으로부터 시작되여야 한다고 하신 수령님께서께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헌법은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헌법이며 모든 법의 기초로 되는 기본법, 다시말하여 어머니법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헌법에 기초하여 부문별로 새로운 법들을 채택하여

야 한다, 지금 사회주의로동법과 토지법은 채택하기 위한 준비가 다 되였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어린이보육교양법을 먼저 채택하는것이 좋을것 같다, 우리 나라에서는 어린이들이 《왕》이기때문이다라고 말씀을 이으시였다.

그때에야 그는 《왕》에 대한 법부터 채택하자고 하신 그 뜻을 알게 되였다.

《〈왕〉에 대한 법부터 채택합시다》

그로부터 몇달후인 주체65(1976)년 4월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6차회의에서는 어린이보육교양법을 채택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께서는 최고인민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 《어린이보육교양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에서 어린이보육교양법을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어린이보육교양법이 채택됨으로써 공화국에는 어린이보육교양을 위한 국가적 및 사회적활동질서와 사업체계의 총체로서의 어린이보육교양제도가 완벽하게 확립되게 되였다.

본사기자

《발갸이노래》에서 《바다 만풍가》에 이르기까지

여생길엔 행복넘칠 우리 생활

요즘 공화국에서는 《바다 만풍가》와 《첼렁아래 사과바다》와 같은 민요풍의 노래들이 많이 창작되어 사람들의 인기를 끌며 널리 불리워지고 있다.

이 노래들을 듣노라면 웃음 가득 선창에 쌓이는 물고기산과 눈썹리 아득하게 펼쳐진 첼렁아래 사과바다가 금시 눈앞에 펼쳐지는 것만 같다. 그런가하면 사랑하는 안해를 노래한 《우리 집사람》이나 세월이 갈수록 청춘의 낭만과 희열을 복돋아주는 가요 《세월이야 가보라지》 역시 누구나 흥얼흥얼 따라부르게 되고 부르며 절로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노래들이 아닐 수 없다.

절가화된 가사의 내용들도 좋지만 민족의 멋

과 흥취가 풍기는 민요풍의 곡조들이어서 더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닌가 싶다.

흔히 민요란 오랜 역사적과정에 인민대중자신이 창작하여 일상생활에서 불리는 노래로서 매개 나라와 민족의 인민 음악, 민속음악을 대표한다. 민요에는 당대의 시대상과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 생활세태와 풍습 등이 진실하게 반영되어 있으며 다양한 종류와 형식, 표현수단들이 축적되어 있다.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가진 우리 민족에게도 조선 민족이 지닌 소박하고 진실한 민족적 정서와 생활 감정을 담은 다양하고 풍부한 민요들이 있다. 조선민요는 선물이 유순하고 아름답고 우아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뿐 아니라 구성지고 치량한 정서로 하여 사람들의 감동을 자아낸다. 아마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장중하면서도 은은하게 울리는 《아리랑》을 들으며 무어라 이름할수 없는 애뜻하면서도 절절한 감정에 눈굽을 적셨을 것이다.

공화국에서는 일찌기 민족음악과 서양음악을 다같이 하되 민족음악을 위주로 발전시키며 민족음악에서도 주로 민요를 발전시키는 방향을 견지하여왔다.

하여 이전 민요들을 시대적요구와 인민들의 현대적미감에 맞게 전면적으로 재창조, 재형상하는 사업들이 진행되었으며 동시에 새로운 민요풍의 노래들도 많이 창작되게 되었다.

인민들의 사랑을 받

며 널리 불리워지고있는 《발갸이노래》, 《그네 뛰는 처녀》, 《모란봉》, 《소방을 소리》, 《해당화》, 《바다의 집사람》, 《세월이야 가보라지》, 《바다 만풍가》, 《첼렁아래 사과바다》와 같은 노래들은 다 이렇게 창작된 것들이다.

요즘 세상을 둘러보노라면 《세계화》라는 미명하에 퇴폐적이고 괴상망측한 것들이 마치 유행병마냥 사람들을 전염시키고있는 것을 볼수 있다. 반면에 옛것을 그대로 옹호하는 것이 마치 《민족

성》인듯이 떠들어대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다 온갖 민족적인 것을 사멸시키거나 이른바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낡고 뒤떨어진 것을 답습하

는 복고주의적인 경향인 것으로 하여 인민대중의 지향과 념원에 부합될수 없는 것이다.

국가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철저히 고수하

고 견지해나가는 공화국의 정책이 얼마나 정당한가 하는 것은 날로 발전풍부화되고있는 조선민요의 세계를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고 본다.

본사기자 박철남



김경옥은 국내는 물론 해외동포들속에도 잘 알려진 민요 가수이다.

지금도 라향만리에서 살고 있는 해외동포들은 만수대에 술잔의 김경옥 민요가수가 부른 《양산도》, 《우리 민족 제일일세》, 《처녀의 노래》, 《황금산타령》, 《뽕죽새》와 같은 민요들이 수록된 화면편집물 《우리 장단이 좋아》를 즐겨 보며 향수에 젖기도 하고 조선민족의 일원된 긍지로 가슴 부풀기도 한다.

맑고 우아한 목소리, 독특한 굴림, 민족적인 멋을 살려주는 조선장단을 타고 흥취나게 부르는 그의 노래를 들으며 사람들은 민요의 정서세계에 깊이 빠져들곤 한다. 한때 국내 민요계를 풍미했던 김옥선가수를 대신하는 민요가수로서 김경옥을 꼽는 것이 우연이 아니다.

민요가수로서의 그의 명성은 지난 시기 순회공연을

진행한 중국, 로씨야, 일본, 도이칠란드 등의 나라들에서만이 아닌 남녘동포들속에서도 자자하다. 삼천리강도가 6.15통일일로 풀어진 날 남조선에서 진행된 민족통일대축전장대에서 그가 민족적 정서와 생활감정이 담겨진 민요를 멋들어서 지게 뽕아님길 때면 장내는 샅시에 춤판으로 바뀌곤 하였다.

1963년 평안남도의 한 바다가지역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김경옥은 어려서부터 노래부르기를 즐겨했다고 한다.

남달리 품고 청아한 목소리로 군이나 도에서 진행된 예술공연들에서 관중들의 절찬을 받은 그의 예술적소질을 헤아려 나라에서는 청진예술학원으로 불러주었고 그후 평양음악무용대학(당시)에서 재능의 나라를 마음껏 펼칠수 있게 해주었다.

그전까지 민요와 함께 여러 가요들을 많이 불러온 그가 민족음악의 정수인 민요를 전공하게 된 데는 대학시절 인민들의 사상감정을 소박하고 진실하게 반영하고있어 겨레의 사랑을 받는 전통민요의 우수성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면서부터였다. 그후 만수대에술단 민요독창가수로 있는 나날 그는 《우리 장단이 좋아》,

《대흥단삼천리》와 같은 민요들을 잘 불러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기쁨을 드리웠다.

국내의 우수한 예술인들이 참가하는 2.16예술상개연연 민족성악부문에서 여러차례 1등을 한 전적을 가지고있는 그는

현재 김원균명칭평양음악대학 민족성악강좌 강좌장으로 있다. 그의 제자들 가운데는 유명한 모란봉악단을 비롯하여 국내외의 관록있는 예술단체들이 적지 않다.

그는 말한다. 《우리 겨레뿐 아니라 언어와 피부색이 다른 외국인들도 누구나 어깨춤을 들썩이는 우리의 민요는 생활의 불꽃이 되고있다. 민족의 자랑인 민요의 바통을 이어 더 많은 민요가수들을 키우는데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겠다.》

본사기자

《대흥단삼천리》와 같은 민요들을 잘 불러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기쁨을 드리웠다.

국내의 우수한 예술인들이 참가하는 2.16예술상개연연 민족성악부문에서 여러차례 1등을 한 전적을 가지고있는 그는

현재 김원균명칭평양음악대학 민족성악강좌 강좌장으로 있다. 그의 제자들 가운데는 유명한 모란봉악단을 비롯하여 국내외의 관록있는 예술단체들이 적지 않다.

그는 말한다. 《우리 겨레뿐 아니라 언어와 피부색이 다른 외국인들도 누구나 어깨춤을 들썩이는 우리의 민요는 생활의 불꽃이 되고있다. 민족의 자랑인 민요의 바통을 이어 더 많은 민요가수들을 키우는데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겠다.》

본사기자

의 안해가 평양음악무용대학에 입학할 당시만 해도 그들의 전공은 바이올린과 피아노였다. 하지만 음대대연주가이자 실력있는 저대연주자들을 많이 키워낸 교원이다.

그는 1970년대에 벌써 혁명가곡 《금강산의 노래》를 비롯한 여러 가극창조에 참가한 바 있으며 평양음악무용대학(당시)을 졸업하고 교원이 된 1977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저대연주자들을 키워왔다. 그의 제자들 가운데는 국립민족예술단과 총련의 금강산가극단과 같은 이름있는 예술단체들에서 인민들과 재일동포들의 사랑을 받는 연주자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그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그의 가정이 민족음악가 가정이기때문이다.

그의 안해 주혜련(57살)은 중해금연주자로 같은 대학의 지도교원으로 있으며 딸 황련아(27살)는 국립민족예술단의 양금연주가, 둘째 딸 황나연은 대해금연주자로 부모들과 같은 대학에 다니고있다. 말그대로 온 집안이 민족악기를 전문하고있는 것이다.

원래 황진철선생과 그

의 과정에 그들도 부모들의 뒤를 이어 민족악기를 다루게 되었다.

품은 뜻이 아무리 크고 아름다운 것이라 할지라도 모든 일이 순란하게만 흘러가는 것은 아니었다. 둘째딸이 대학에 입학하던 때였다고 한다. 어느 날 저녁 황진철선생이 집에 들어서니 딸만이 동생만은 양악기인 첼로를 시키든가 바이올린을 시키자고 하면서 민족악기를 기어코 해야 한다면 아버지 와 어머니 그리고 제가 하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었다. 아마도 동생을 국제콩쿨무대에 내세워 이름을 날리게 하려는 명에심이 작용하였던 모양이다.

그날 황진철선생은 너희 부모는 한생을 민족음악을 하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이다, 자기 수령의 뜻도 모르고 자기 나라, 자

기 민족도 모르고서야 어떻게 조선사람이라고 할수 있겠느냐고 딸을 타일렀다. 이런 나날을 거쳐 그의 온 가족은 민족악기를 하게 되었다.

이런 가정을 온 나라가 다 알도록 내세워주신분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시었다. 2010년 8월 만팔황련아가 연주하는 양금독주를 보아주신 장군님께서 그의 온 가족이 민족악기를 한다는 것을 아시고 매우 만족해하시면서 이 동무의 집안은 민족음악가가정이라고, 아마 이런 가정은 드물것이라고, 민족음악을 발전시키려면 이런 가정이 많아야 한다고 높이 평가하시었다.

이렇듯 절세위인들의 축복과 한없는 믿음을 받아안은 황진철선생가정 이기에 온 집안이 민족음악발전을 위해 있는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올수 있었다.

민족음악가가정! 민족음악의 전통을 빛내여가는 이런 가정이 있어 오늘도 우리의 민족음악이 온 세계에 울리고 우리 민족의 아리랑곡조가 더 높이 울려가고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본사기자



대동강반을 따라 5월 1일경기장쪽으로 가느라 면 트라인민유원지의 한 끝에 건물외벽이 모두 거울로 되어있는 겨울 집이 있다.

겨울집의 안은 천정과 벽면이 모두 거울로 되어 있는데 1.5m가 되는 것을 수백개를 이어붙여 입구로부터 출구로 나가는 통로를 만들었다. 입구로 들어가서 거울들로 된 칸막이와 통로를 따라 출구

로 나오게 되어있는 겨울 집에는 통로를 따라가면 서 여러 갈래의 길을 만들어 놓았는데 차츰 길을 잘 못들면 출구를 찾을수 없는 미궁도 있다.

겨울집에 들어서서 온갖 지혜를 발동하여 좁고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출구로 찾아나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길을 찾지못해 돌고돌다가 입구로 도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

기자도 겨울집에 들어가서 제대로 출구를 찾을수 있을가 하는 우려심을 안고 조심스럽게 통로를 따라나갔다. 두 갈래로 된 길에 들어서 자신있게 한쪽을 선택해 가보았지만 아불사, 그만에야 미궁에 빠져들었다. 이쪽인가 하

고 가느라 면 거울벽에 이마를 짓쫓고 저쪽인가 하여 가다보면 분명 왔던 곳인데 마주오는 사람들이 못들면 출구를 찾을수 없는 미궁도 있다.

겨울집에 들어서서 온갖 지혜를 발동하여 좁고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출구로 찾아나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길을 찾지못해 돌고돌다가 입구로 도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

기자도 겨울집에 들어가서 제대로 출구를 찾을수 있을가 하는 우려심을 안고 조심스럽게 통로를 따라나갔다. 두 갈래로 된 길에 들어서 자신있게 한쪽을 선택해 가보았지만 아불사, 그만에야 미궁에 빠져들었다. 이쪽인가 하

로 나오게 되어있는 겨울 집에는 통로를 따라가면 서 여러 갈래의 길을 만들어 놓았는데 차츰 길을 잘 못들면 출구를 찾을수 없는 미궁도 있다.

겨울집에 들어서서 온갖 지혜를 발동하여 좁고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출구로 찾아나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길을 찾지못해 돌고돌다가 입구로 도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

기자도 겨울집에 들어가서 제대로 출구를 찾을수 있을가 하는 우려심을 안고 조심스럽게 통로를 따라나갔다. 두 갈래로 된 길에 들어서 자신있게 한쪽을 선택해 가보았지만 아불사, 그만에야 미궁에 빠져들었다. 이쪽인가 하

로 나오게 되어있는 겨울 집에는 통로를 따라가면 서 여러 갈래의 길을 만들어 놓았는데 차츰 길을 잘 못들면 출구를 찾을수 없는 미궁도 있다.

겨울집에 들어서서 온갖 지혜를 발동하여 좁고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출구로 찾아나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길을 찾지못해 돌고돌다가 입구로 도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

기자도 겨울집에 들어가서 제대로 출구를 찾을수 있을가 하는 우려심을 안고 조심스럽게 통로를 따라나갔다. 두 갈래로 된 길에 들어서 자신있게 한쪽을 선택해 가보았지만 아불사, 그만에야 미궁에 빠져들었다. 이쪽인가 하

자주통일의 대통로와 《3대통로》

올해에 공화국에서는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는 역사적인 호소가 울려나왔다. 이에 남조선당국은 《민생, 환경, 문화의 3대통로》 제안으로 맞대응하였다.

하늘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을 보는 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공화국의 대통로제안에는 조국해방 70돐, 민족분열 70년이 되는 올해에는 어떻게 하나 북남사이의 불신과 반목, 대결의 역사를 종지부를 찍고 북남관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기에 애국, 애족, 애민의 숭고한 뜻이 어려여있다.

공화국이 제안한 자주통일의 대통로가 뜻깊은 올해에 민족의 화합과 통일, 북남관계개선의 넓은 길을 열어가기 위한 통일애국의 제라던 남측이 떠드는 《3대통로》는 이러한 겨레의 끊어버지는 지향과 시대적요구를 외면한 《통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자주통일의 대통로제안이 현 북남관계문제, 나라의 통일문제를 대하는 공화국의 성의있는 노력과 넓은 립장의 반영이라면 남측의 《3대통로》라는 것은 북남관계의 현실을 외면한 속이 비좁고 통이 웅졸한 《통로》다.

대통로를 열자니까 덜컥 겁이 났는가. 북남관계가 확 바뀌는게 무엇인가 두려운게 있는가. 사람이 걸어가는데는 오솔길

도 있지만 대통로면 더욱 좋다. 길이 넓어 부딪치는 사람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활개치며 갈수 있다. 북남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작은 오솔길로 술금술금 다녀서야 언제 불신과 대결의 두려운 장벽을 녹이며 통일의 종착점까지 도달할수 있겠는가.

더우기 올해는 민족분열이 70번째 년륜을 새기는 해이다.

해방동이들의 머리에 흰서리가 질게 내린 지금도 우리 겨레가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분열의 고통을 겪고있는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세대와 세기를 이어오는 민족분열의 비극을 이제 더이상 참을수도 허용할수도 없기에 공화국은 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오고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자고 뜨겁게 호소하였다.

그런데 남측의 《3대통로》 제안이라는것은 공화국의 진정어린 제안을 무시하고 북남관계가 처한 오늘의 현실과 겨레의 지향을 외면하고 있다.

한마디로 그것은 시시껄렁하고 지엽적인 문제들로 대결과 분열의 현실을 지속시키자는것 외에 다름이 아니다. 현 북남관계문제, 나라의 통

일문제가 결코 《민생, 환경, 문화의 통로》가 열리지 못해 해결되지 못하는것이 아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선차적이며 중대한 문제는 북남사이의 정치군사적인 문제이다. 다시말하여 날로 짙어가는 전쟁위험을 제거하는 문제, 북남사이의 지속되는 대결상태를 끝장내는 문제이다.

그러자면 남조선당국이 동족을 반대하여 외세와 함께 벌리는 대규모전쟁연습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하며 북남사이의 불신과 갈등만 부추기는 체제대결책동을 그만두어야 한다.

남조선에서 해마다 그칠사이없이 벌어지는 대규모전쟁연습들은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민족의 머리우에 핵전쟁의 위험을 몰아오는 주되는 화근이다.

지난해에만도 북남고위급접촉이 진행되고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성사되어 관계개선의 첫장이 열려지고있는 때에 강행된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으로 하여 마치며 마려되었던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깨어지고 대결과 전쟁위험만이 증대되었다. 그뿐 아니라 세계는 이런 전쟁연습이 계속되는 한 북남관계는 개선이 아니라

파국을 면할수 없다는것을 뼈저리게 절감하였다.

그런데 지금도 남조선당국은 전쟁위협체제와 평화적분위기조성이 저들과는 상관이 없는듯이 북침전쟁연습소동에 련일 광분하고있다. 오는 3월초부터는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8월에는 《울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계획대로 강행하겠다고 공언하고있다.

그런가하면 《표현의 자유》니 뭐니 하며 어중이떠중이 인간쓰레기들을 반공화국베라살포와 《인권》모락소동으로 계속 부추기고있다.

민족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고 북남관계를 악화으로 떠미는 근본문제들을 외면한채 《3대통로》요 위요하는것은 근본을 쫓아내고 말단을 내흔드는 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그것은 저들의 대결본심을 가리우기 위한 술수라고밖에 달리 해석되지 않는다.

남측이 말하는 《3대통로》는 그들이 그토록 외우는 《리산가족의 아픔》도 외면한 《통로》이다.

북과 남으로 흩어진 가족, 친척문제를 시급히 해결하자라는것은 공화국의 시종일관한 립장이다.

공화국은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상봉을 마련하기 위해 지금껏 주동적이고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북남사이에 새 세기의 첫기슭에서 6.15공동선언이 채택되고 지금까지 이루어져온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은 공화국의 이런 성의있고 인내성있는 노력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공화국의 주동적인 제의와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남조선에서 보수 《정권》이 등장한 이후에도 북과 남사이에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거듭 실현될수 있었다.

오히려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상봉실현에 쫓겨를 치고 방해는 미군과 남측당국이였다.

남조선보수당국이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문제가 일정에 올랐을 때 남조선군을 내몰아 조선해 5개 섬일대에서 포사격훈련을 강행하고 북남적십자실무접촉이 진행되는 시각에 조선해의 남조선지도상공에 미국의 《B-52》 핵전략폭격기편대가 들어와 북침제타격을 노린 도발적인 폭격연습에 돌아치게 한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북과 남으로 흩어진 가족, 친척문제를 시급히 해결하자라는것은 공화국의 시종일관한 립장이다.

친척들의 상봉을 실현하자고 해도 조선반도에 평화적인 분위기가 마련되어야 하고 북남의 래왕과 협력을 가로막는 제도적장치가 해체되어야 함은 두말할 여지도 없다.

그런데 이런것이 해결되지 않고 해결하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3대통로》나 만든다고 흩어진 가족, 친척들이 만날수 있겠는가.

전쟁위험이 없는 평화의 대통로, 대결이 없는 화해의 대통로를 열어야 북남관계도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흩어진 가족, 친척들도 마음놓고 자유롭게 만날수 있으며 남측이 말하는 《3대통로》도 열릴수 있는것이다.

조국해방 70돐, 민족분열 70년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는것은 북의 호소이기 전에 온 겨레의 뜨거운 지향이고 력사와 시대의 엄숙한 요청이다.

지금 북남관계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느냐 아니면 대결과 분열의 역사를 이대로 무한정 지속하느냐 하는 력사의 갈림길에 서있다.

남조선당국은 공화국의 진정어린 제의에 원새끼를 팔것이 아니라 겨레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에 화답하여 진정으로 북남관계를 개선하는 길로 돌아서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최광혁

올해를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놓는 전환의 해로 빛내

북남관계의 역사를 새롭게

이기 위해서는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이 뜻과 힘을 합쳐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적인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우리 민족의 뜻과 힘을 합친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정의감이 강하고 진리를 사랑하며 의리를 귀중히 여기었으며 레철이 밝고 겸손한 품성을 지니었다. 이와 함께 하나로 뭉치려는 단결력과 단합의 정신도 매우 강하였다.

정의감이 누구보다 강한 우리 민족은 외적이 침입하면 모두가 떨쳐나서 오랑캐를 쳐몰아내고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여왔다.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의 시대굴종으로 온 강도가 외세의 통략물로 몸부림칠 때에도 우리 겨레는 《보국안민》, 《척양척왜》의 기치아래 끈기있게 전몰과 공포를 안겨주었으며 일제에 의하여 삼천리강토가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할 때에는 3.1인민봉기로 민족의 기개와 단합된 힘을 세상에 과시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최후공격작전과 그에 합세하여 온 겨레가 적극적인 전

민항전을 벌려 간악한 일제를 타도하고 조국해방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된것은 민족의 단결된 힘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것을 잘 보여주었다.

북과 남이 통일의 길에서 뜻과 힘을 합친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은 지난 6.15통일시대가 잘 말해주고있다.

근 반세기이상 묻혀있던 지리들을 날려보내며 북과 남사이에 철도와 도로가 이어지고 바다와 하늘에서 쌍방의 선박들과 항공기들이 직선항로를 따라 오가는 경이적인 사변도 이 시기에 있는 일이었다.

6.15가 펼쳐준 민족화해와 단합의 거대한 흐름속에 헤어져 수십년세월 생사조차 알길 없었던 북과 남의 흩어진 가족, 친척들이 열사안한 감격적인 상봉들이 마련되고 수많은 남조선인민들이 민족의 명산 금강산과 고려의 옛 수도 개성관광의 즐거움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였다. 평양과 서울, 인천, 금강산과 부산 등지에서 통일축구, 통일마라손, 통일자전거경기가 열리고 국제경기무대들이 서로 통일을 휘날리며 북과 남의 선수들이 공동으로 입장하여 전세계에 우리 민족의 통일의지를 힘

있게 과시하였다. 부산에서 진행된 아시아경기대회, 대구에서 열린 세계대학생체육경기대회장에서 울려 퍼진 《조국통일》, 《우리는 하나다》의 함성은 피줄도, 언어도, 문화도, 력사도 하나인 우리 민족이 뜻과 마음을 합친다면 이 땅우에 능히 존엄높고 부흥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울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뭉치면 이기고 흩어지면 패한다는것은 력사의 철리이다. 민족분열의 70년을 맞이하는 이 시각 우리 온 겨레가 바라는 한결같은 소망은 북과 남이 싸우지 말고 힘을 합쳐 통일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자는것이다.

겨레의 이 절절한 소망을 반영하여 얼마전 평양에서 진행된 공화국정부, 정당, 단체인합회의에서도 더이상 체제대결을 추구하지 말며 민족분열 70년이자 조선전쟁이 일어난지 65년이 되는 올해를 동족을 반대하여 외세와 함께 벌리는 전쟁연습이 없는 첫해, 조선반도의 평화가 시작되는 력사의 해로 만들데 대한 통일애국의 호소문이 발표되었다.

호소문에도 지적되어있는것처럼 해마다 강행되는

《방어적》이라고 정당화해나선다면 백년이 가도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할수 없고 핵전쟁의 위험을 가질수 없다.

온 겨레는 북남관계개선을 해치고 민족의 머리우에 핵참화를 몰아오는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단호히 반대배격해나서야 하며 북과 남은 관계개선과 통일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대화와 협상을 진행하여 북남관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야 할것이다. 최석현

어느덧 새해의 첫 한달이 지났다. 조국해방 70돐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갈것을 호소한 공화국의 신년사를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격동속에 받아내고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있지만 아직 북남관계에서 이렇다할 전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있는것은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 아닐수 없다.

지난 20일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인합회의에서는 신년사에서 제시된 조국통일과업관철을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에 떨쳐나설것을 온 겨레에게 호소하는 호소문이 발표되었으며 이는 우리 민족과 세계의 지지찬동을 받고 있다.

하지만 공화국의 이러한 성의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이 의연 침체상태에 빠져있는것은 과연 무엇때문인가.

북남관계를 개선하자면 그에 맞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는것은 누구나 알고있는 상식이다. 지난해에 북남사이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놓고보더라도 그것이 충

북침전쟁연습이 《년례적》이어서 중단할수 없다고 강변하고

《방어적》이라고 정당화해나선다면 백년이 가도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할수 없고 핵전쟁의 위험을 가질수 없다.

온 겨레는 북남관계개선을 해치고 민족의 머리우에 핵참화를 몰아오는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단호히 반대배격해나서야 하며 북과 남은 관계개선과 통일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대화와 협상을 진행하여 북남관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야 할것이다. 최석현

어느덧 새해의 첫 한달이 지났다. 조국해방 70돐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갈것을 호소한 공화국의 신년사를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격동속에 받아내고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있지만 아직 북남관계에서 이렇다할 전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있는것은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 아닐수 없다.

지난 20일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인합회의에서는 신년사에서 제시된 조국통일과업관철을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에 떨쳐나설것을 온 겨레에게 호소하는 호소문이 발표되었으며 이는 우리 민족과 세계의 지지찬동을 받고 있다.

하지만 공화국의 이러한 성의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이 의연 침체상태에 빠져있는것은 과연 무엇때문인가.

북남관계를 개선하자면 그에 맞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는것은 누구나 알고있는 상식이다. 지난해에 북남사이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놓고보더라도 그것이 충

존엄높고 부흥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분히 증명된다. 지난해초에 북과 남은 고위급접촉을 진행하고 거기에서 일련의 합의들을 마련함으로써 여러해만에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사업을 진행하는 등 첫발을 좋게 내디디었다. 그러나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진행되는 그 시각에도 외세의 지휘조종밑에 방대한 무력을 동원한 북침합동군사연습을 하는가 하면 비방중상중단합의를 한쪽 하게 위반하고 국우보수

리》 합동군사연습을, 8월에는 《울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계획대로 강행하는것을 이미 기정사실화해놓은 상태이다. 또 미국상전의 비위를 맞춰가며 《련합방위태세》에 만전을 기한다는 미명하에 여전히 핵탄을 적재한 전략폭격비행대를 비롯한 침략무력을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에 끌어들이는것으로 관계개선분위기를 전쟁분위로 덮어놓으려고 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은 대결과 전쟁밖에 초래할것이 없는 무모한 《체제통일》론과 결별하고 통일문제를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순조롭게 풀어나가며 편협하고 적대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 새로운 자세에서 북남관계개선과 자주통일, 평화변명을 위한 길로 발길을 돌려야 한다.

이제 공은 남측에 가있다. 남조선당국은 말로만 대화를 하자고 할것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 관계개선의 실제적인 분위기가 중요하다는것을 다시금 명심하여야 한다. 본사기자 김철민

실정이다. 한쪽으로는 마치 저들이 대화와 협상에 관심이 있는것처럼 여론을 오도하면서도 대화분위기를 마련할수 있는 현실적조치들은 외면하는 남조선당국의 태도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현실은 남조선당국자들의 머리속에 상대방에 대한 불신, 북남관계를 진실로 개선할 의지는 없이 대화를 전략적목적에 리용해보려는 불순한 흥계만이 가득차있다

남조선당국은 대결과 전쟁밖에 초래할것이 없는 무모한 《체제통일》론과 결별하고 통일문제를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순조롭게 풀어나가며 편협하고 적대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 새로운 자세에서 북남관계개선과 자주통일, 평화변명을 위한 길로 발길을 돌려야 한다.

이제 공은 남측에 가있다. 남조선당국은 말로만 대화를 하자고 할것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 관계개선의 실제적인 분위기가 중요하다는것을 다시금 명심하여야 한다. 본사기자 김철민



조국통일운동을 벌려나갈것을 호소하는 남조선인민들

고대그리스신화가 주는 교훈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을 바라는 우리 겨레의 념원이 자주통일의 대토를 열어나아가려는 지향으로 이어지는 오늘 남조선에서는 황당한 《중북》소동이 계속 이어지고있다. 겨레의 념원과 지향에 역행하는 《중북》소동을 보니 고대그리스의 신화가 하나 떠오른다. 온 아테네를 공포와 불안에 떨게 한 괴물에 대한 이야기다. 신화에 의하면 프로크루스테라는 구척이 넘는 괴물이 도시로 들어가는 길옆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무려대고 모조리 잡아서는 악독한 교문을 들이쳤다고 한다. 길이가 같지 않은 두 개의 침대를 놓고 키가 큰 사람들은 작은 침대에 놓혀서 침대밖에 나온 다리부분을 사정없이 도끼로 잘라버렸고 반대로 키가 작은 사람은 커다란 침대에 놓혀 침대끝까지 두다리를 잡아당겨 목청 뽑아 버렸다. 그로 하여 행인들은 물론이고 주변사람들모두가 불안과 공포에 떨었다고 한다. 이 신화에서 자기의 결심이나 의사를 무려대고 억지로 남에게 내려먹이는 경우를 나타내는 성구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가 생겨났다. 시대착오적표현인 《중

북》, 그것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와 어떤 신동한가. 공화국을 다녀온 사람들, 말과 글로 공화국의 현실을 그대로 전한 사람들은 무조건 《중북》이다. 공화국에 대해 알려고 했거나 북과 관련한 자료를 보기만 해도, 혈육이 사는 공화국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있어도 《중북성향》이 된다. 지어 그런 사람들을 철결대상으로 한 《중북백과사전》이라는것이 만들어질 정도이다. 언제인가 미국의 어느 한 종교지도자는 조선을 방문하고나서 《하느님이 가시도 할 일이 없는 곳》이라고 하였다. 적대국인 미국의 종교인도 방문하고 찬양한 공화국에 대해 유독 동족인 남조선인민들은 알아서도 안되고 알려고 해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통일에 방해하는 이 시대에 있을 법한 일인가. 《중북》은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생존권을 위한 사람들에게도 마구 들썩인다. 몇년전 남조선의 어느 재판소에서는 증인의 발언중에 《분공》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검사가 그것이 북에서 쓰는 말이 아닌가 되물어 사람들을

아연케 한적이 있었다. 인터넷시대에 오늘날 남조선에서는 인터넷가 정보원의 감찰대상이 되고 북과 관련된 글을 올렸다고 하여 수백수천건씩 삭제되고 구속처벌당하는 인권유린행위도 부지기수이다. 《중북》이란 딱지를 한번 받으면 취업, 거주, 결혼이 불가능한것은 물론이고 현직도 유지할수 없는 등 초보적인 인권까지도 무참히 짓밟히며 나중에는 《용공》, 《간첩》으로 몰려 중형까지 받게 된다. 이처럼 《중북》은 남조선사회를 《아》, 《아》로 구분하는 척도로, 사람들을 호상간에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매개물로 되었다. 고대그리스신화의 악당은 자기의 침대를 기준으로 삼아 사람들을 못살게 굴더니 오늘날 남조선당국은 《중북》을 기준으로 인민들을 탄압한다. 그렇게 놓고 보면 《중북》은 현대판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가 아닌가 싶다. 북남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결《침대》, 동족에 대한 그 어떤 찬양, 동경도 무자비하게 잘라버리는 폭압《침대》, 없는 죄도 만들어썩워 탄압

하는 독재《침대》. 민족분열의 일흔해동안 지척인 공화국에 대해, 동족에 대해 이지리지고 외곡되고 날조된 모략선전만을 받아들인 남조선인민들이 북의 실상을 알고싶어하는것은 너무도 응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을 보지도 말라, 북에 대해서도 하지 말고 알려고도 하지 말라, 무작정 가만히 있으라고 한다면 이런 사회는 온전한 사회가 아니고 민족이 바라는 화해와 통일도 이룰수 없다. 북과의 《대화》를 운운하는 남조선당국이 《중북》으로 남조선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증식시키고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킨다면 거기에 무슨 《진정성》이 있단 말인가. 죄는 지은대로 가고 죄에는 벌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리스신화의 프로크루스테스는 자기가 저지르던 악행의 방법처럼 아이들에게나 맞는 자그마한 침대에 묶어 두동강나버린다. 남조선사회를 탄압관으로 만들고 북남관계를 악화로 몰아가는 무분별한 《중북》소동에 계속 매달리는 남조선당국은 프로크루스테스의 종말에서 교훈을 찾아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김정혁

외설의 칼부림이 기승을 부린다

남조선에서 합법적정당인 통합진보당이 강제해산된 사실을 두고 《표현의 자유, 결사, 집회의 자유가 무참히 유린되었다》, 《민주주의가 말살되었다》고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런데 지금 그에련이 그칠줄모르고 더 세차게 남조선당을 휩쓸고있다. 최근 남조선당국이 《보안법》을 개악하여 통일애국단체들을 강제해산하고 진보민주세력을 말살하기 위한 책동에 더욱 발악적으로 매달리고 있는것이 그러하다. 지난 21일 남조선의 법무부장관은 청와대에 보고한 《2015업무계획》이라는데서 《헌법》과 《헌법》을 통해 최우선과제로 하고 반《국가》단체와 《리적》단체강제해산을 위한 《보안법》개정을 위한 《보안법》위반에 현 집권자도 《법을 무

시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보안법》개정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지금 남조선당국은 《리적단체가 더이상 활동할수 없도록 제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떠들면서 통일애국단체들과 진보민주세력을 로골적으로 해산해버릴수 있도록 《보안법》을 더욱 개악하는데 달라붙고있다고 한다. 《보안법》으로 말하면 북남관계개선과 남조선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가로막아온 파쇼악법으로서 이미 매장되었어야 할 력사의 퇴물이다. 저들의 눈에 거슬리는 사람은 순식간에 《간첩》으로 만들어버리고 수많은 애국인사들을 사회의 《적》으로 규정해버리는 《보안법》. 여기에 걸려형장의 이슬로 억울하게 쓰러져간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그 광풍에 휘말려 사람들은 자유를 잃어버렸고 민주주의는 말살되어버렸다. 지난 22일 전 통합진보당 의원 리석기가 《내란선동과 불법위반》 혐의를 들쓰고 징역 9년형을 처해졌는가 하면 2013년 5월 리석기와 함께 어느 한 모임에 참가하였던 130여명이 《보안법》위반에 걸려 수사를 받고있다.

그리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하여 지난 시기 북과 접촉하고 교류하였거나 북남화해와 통일을 주장하는 재야시민단체들과 각계층 인사들이 《보안법》에 걸려 사법처리되고있다. 북을 바로 알고 동경하려 해도 《보안법》, 북의 노래를 부르거나 자연경치를 있는 그대로 표현해도 《보안법》, 실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사람들을 탄압하는 《보안법》이다. 남조선당국이 내외여론과 규탄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안법》을 한사코 개악하려 하는것은 다른데 목적이 있지 않다. 바로 진보와 통일애국세력의 씨를 말리려는데 그 속심이 있다. 남조선당국이 통일애국단체들과 인사들을 《중북》으로 몰아 탄압하는것은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을 이룩할데 대한 북의 호소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수 있다. 동족을 적대시하고 통일운동을 범죄시하면서 《신뢰조성》이니, 《대화》니 하는것은 대화상대방에 대한 모독이고 우롱이라고밖에 달리 말할수 없다.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을 위해 《보안법》이 철폐되는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본사기자 김련옥



남조선당국의 파쇼적기도를 규탄

남조선인터넷신문 《민족일보》가 22일 날이 갈수록 더욱 로골화되는 남조선당국의 파쇼적기도를 규탄하는 사실을 실었다. 사실은 최근 현 《정권》의 공안탄압이 더욱 확대되고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9일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한데 이어 공안당국은 진보적인 단체들과 인사들에 대한 탄압을 계속 감행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평소부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겨오던 당국이 공안탄압력을 내몰아 단체를 해체시키려고 하고있다고 지탄하였다. 이것은 공안사건관련자들의 변호를 말아한 민변에 대한 정치적보복이라고 까뻐했다. 진보적인 정당, 단체, 인사들에 이어 정치인, 종교인, 법조인들에게가

탄압의 칼날을 겨누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당국의 파쇼화가 과연 어느 단계에 이르렀는가를 보여준다고 지적하였다. 법무부는 《반국가단체》와 《리적단체》의 해산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 진보, 민주주의 존재를 없애버리려는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보였다고 단죄하였다. 공안탄압은 최근 집권자에 대한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는데 바빠맞은 당국이 위기에 빠진 저들의 잔명을 유지해보기 위한데 목적이 있다고 폭로하였다. 사실은 《정부》가 파쇼탄압을 강화하는것은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자멸행위라는것을 명심하고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하루빨리 퇴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1월의 정세흐름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이해의 1월은 온 민족과 세계의 시선이 조선반도에 집중된 한달이었다. 조국해방 일흔돐, 민족분열 70년이 되는 새해의 첫 아침, 공화국에서는 올해를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오는 전환의 해로 빛내이며 온 겨레가 떨쳐나서 자주통일의 대토를 열어나갈데 대한 력사적인 신년사가 울려나왔다. 외세가 강요한 민족분열의 비극을 더이상 참을수도 허용할수도 없으며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면 최고위급회담도 마다할 리유가 없다고 한 신년사의 구절구절을 올해에 어떻게 하나 북남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통일의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안아오려는 공화국정부의 뜻과 의지가 반영된 획기적인 제의, 중대립장의 천명이었다. 이에 대해 남조선 각계와 세계가 주목하고 적극 지지찬동하여 나섰다. 남조선당국내에서도 북의 신년사에 주목하며 대화가 빨리 열리기를 바란다는 소리들이 울려나왔다. 문제는 《대화》를 말하면서도 반공화국대결과 전쟁정책이 종래와 하등 달라진것이 없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태도와 자세이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심사숙고하여 공화국의 대법한 제의에 응해나올 대신 얼마 지나지 않아 인간쓰레기들을 내몰아 반공화국 배라를 또다시 뿌려대게 하여 북남관계개선분위기에 시작부터 찬물을 들썩였다. 그런가 하면 미국남조선 《련합체》가 존재하는 한 합동군사연습은 계속》될것이라며 대규모북침합동전쟁연습을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실행하겠다고 하였다. 실제로 남조선공군은 1월 1일 새벽 동해안상공에서 F-15K》 전투기와 FA-50》 경공격기편대들의 전술훈련을 벌여놓았다. 남조선육군도 《새해를 총성과 함성》으로 출발한다고 교야대면서 도처에서 전쟁광기를 부리었

다. 2일에 6군단은 경기도 포천에 있는 훈련장에서 땅크와 장갑차, 자행포들을 동원하여 《도발원점과 지휘세력을 탐지, 타격》하는 화력시범훈련에 광분하였다. 같은 날 3군단의 호전광들은 지난 전쟁에서 당한 《매전의 치욕을 잊지 않았다.》고 하면서 무장강행군, 거점점령, 포병사격훈련을 벌리였으며 11기계화사단의 호전광들은 야외기동훈련에 열을 올리며 살벌한 전쟁분위기를 고취하였다. 북침전쟁연습은 해상에서도 요란히 진행되었다. 지난 8일 동해에서는 해상전투단실탄사격이 일제히 진행되었다. 이어 남조선 호전광들은 미해군과 함께 조선 동해에서 잠수함의 탐지 및 추적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련합해상훈련을 벌여놓았다. 이것도 성차지 않아 내외호전세력들은 공화국의 핵 및 미세일을 제거하고 《북지역에서 특별민사작전》을 벌리게 된 남조선 미국련합사단을 편성하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한편 미국은 새해벽두부터 F-16》 전투기 12대와 수백명의 병력을 본토에서 오기나와의 가테나공군기지에 이동배치하고 남조선과 함께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예정대로 진행할것이라고 공언하면서

정세를 더욱더 긴장시키고있다. 날로 무모해지고있는 북침전쟁소동들은 공화국에 대한 선제공격준비의 일환으로 굴욕적이고 사대매국적인 남조선미국 《호상방위원조협정》 체결 65년이 되는것을 계기로 더욱 로골화되고있다. 공화국을 반대하는 적대세력들의 도발소동은 비단 이것만이 아니다. 공화국에 대한 병적인 거부감에 사로잡혀있는 미국은 《영화의 수호자》들로부터 데로를 고취하던 불순영화제작사가 징벌을 받자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공화국을 걸고들면서 새해에 들어서기 바쁘게 날강도적인 《추가제재》라는것을 조작하였는가 하면 국회에서는 그보다 더 강도 높은 《제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울려나오고있는 판이다. 이것이 저들의 《제재》소동에 남조선을 끌어들이 북남관계개선에 제동을 걸려는 고약한 심보의 발로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로 하여 북남관계에서 한초한초가 새로운 새해의 첫달이 속절없이 흘러갔으며 대화의 분위기가 북침전쟁연습의 살벌한 분위기에 뒤덮이고있다. 공화국은 악화된 북남관계를 어떻게 하나 개선하고 북남관계의 력사를 새롭게 쓰려는 의지에서

정부, 정당, 단체련합회의를 가지고 통일애국의 뜻과 진정이 넘치는 호소문도 발표하였으며 미국에 대담하게 정책전환을 할데 대해 거듭 요구하였으나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적대적인 대결자세는 예전 그대로이고 북침전쟁광기도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았다. 남조선에서 공화국의 현실을 본 그대로 이야기하였다고 하여 재미동포가 강제출국당하고 《보안법》의 칼날이 번뜩이는 속에 범민련 남측본부를 비롯한 통일운동단체들에 대한 탄압소동이 벌어지는 등 북을 걸고 년초부터 《중북》소동의 회오리가 이렇듯 반복적대감을 고취하고 대화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계획적이고 로골적인 도발이 아닐수 없다. 지나온 1월의 날과 날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미국이 북남관계개선을 조금도 바라지 않으며 그에 훼방을 놓기 위해 별의별 음모를 다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남조선당국이 민족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할 자그마한 의지도, 능력도 없고 상전의 눈치를 보면서 동족대결책동에 계속 매달리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북남관계는 어느 일방의 성의와 노력만으로는 개선될수 없다. 지금은 북남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가, 아니면 개선의 궤도에 올라서 새롭게 전진하는가 하는 매우 사활적인 시기이다.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립장이라면 《체제통일》의 어리석은 망상을 버려야 하며 외세와 함께 동족을 위협하는 범죄적인 전쟁연습을 그만두어야 한다. 앞으로의 2월이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 겨레의 지향에 맞게 좋게 흘러갈것인가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불신과 대결로 치달을것인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의 태도에하여 달려있다고 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김용철



북남관계개선을 달가와하지 않는 미국을 규탄하는 남조선인민들

누가 망할 나라인가

썩고 병든 미국, 중국적 파멸은 불가피하다

지난 22일 미국의 오바마는 백악관에서 가진 공식인터뷰에서 《시간이 지나면 북조선정권이 붕괴》될것이라는 입에 담지 못할 극악한 망발을 해대며 내외의 커다란 비난과 공격을 자아내고있다.

한 나라의 국가원수로서는 물론이고 정치인으로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수준이하의 망언이고 너무도 유치하고 너절한 입놀림이라 해야 할것이다.

그의 살기면 망언에는 공화국에 대한 병적인 증오심이 짙차있다.

하다면 왜 미국은 그로록 우리 공화국을 증오하는것인가.

첫째, 이기고싶지만 이길수 없는 상대이기때문이다.

미국은 공화국이 창건된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는 60여년 간이나 대조선적대시압살정책에 집요하게 매달려왔다. 청소한 공화국을 요람기에 압살해보려고 조선전쟁의 불을 지르고 15개의 추종국가무력까지 동원하여 갖은 공세를 다 하였지만 패전을 면할수 없었다. 전후 남조선을 극동최대의 핵전초기지, 북침공격기지로 꾸리고 《푸에블로》호 무장간첩선사건, 관문점사건 등 별의별 군사적위협과 도발소동에 매달려왔으나 그때마다 영웅한 공화국 군대와 인민의

단호한 대응에 본전도 못 찾고 제풀에 맥이 빠져 주저앉은 하였다.

20세기 말기에 행성에 들이닥친 반사회주의역류속에서 미국은 《사회주의종말》을 부르짖으며 조선에 공격의 총화살을 들이대었다. 《핵》문제를 고안해내고 제재와 봉쇄의 울가미도 조이었다. 민족최대의 국상을 당하고 련이은 자연재해까지 당해 고난의 행군을 하는 공화국의 그 무슨 《변화》와 《몰락》을 꿈꾸며 《붕괴》설도 내들렸고 《외과수술식타격》, 핵선제타격 등 각이한 군사적방법을 탁상우에 올려놓고 모의시험, 실전연습까지 해보았으나 그마저도 뜻을 이룰수 없었다. 상대가 미국의 힘으로는 어쩔수 없는 너무도 강한 상대였기 때문이다.

세기를 이어오는 조미사이의 첨예한 핵대결전은 세계전쟁사에도 없는 총성없는 대격전이였고 여기서 미국은 패자의 몰골로 세인의 뇌리에 각인되었다. 전쟁의 방법으로도 이길수 없는 나라, 수십년간에 걸친 제재와 봉쇄에도 끄떡없는 나

라, 압력과 위협이 전혀 통하지 않는 나라가 공화국이다.

궁지에 빠진 미국은 조국을 배반하고 달아난 몇몇 인간쓰레기들까지 동원하여 거짓증언자료를 만들고 불법부당한 대조선 《인권결의》를 조작해내고 베라살포 등 너절한 심리모략전에 더 극성스레 매달리고 있으나 조선의 국력, 령도자와 인민의 혼연일체의 힘은 나날이 더욱 장성강화되고있는것이 현실이다.

이제 미국으로서는 조선을 어찌볼수 있는 더이상의 수단이 없다. 힘과 능력, 배짱과 의지, 지략의 대결에서도 미국은 처참하게 패하였다.

저들의 오랜 기도가 실현될수 없게 되자 드디어 미국은 리성을 잃고, 초대국의 체면도 저버리고 국제사회앞에서 북조선이 망해야 한다고 울분에 차 기업을 토해낸것이다.

둘째, 조선은 미국의 전도에 불안과 위협을 가져다주는 상대이기때문이다.

미국은 《팍스 아메리카》를 부르짖어왔다. 힘으로 다른 나라들을 누르고 정복하며 세계를 미국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

고 지배하자는것이 미국의 변함없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저들의 말에 고분고분하지 않는 나라들에서 《색갈혁명》을 일으키고 수많은 외국수반들을 암살하였으며 유엔도, 국제법도 안중에도 없이 침략의 군화발을 여기저기에 들이밀었다.

《세계화》는 미국을 위한 《세계화》였으며 미국식 《자유와 민주주의》는 모든 나라, 모든 행성인들이 받아들여야 할 《송고한》 가치로 강요되어왔다.

그러나 여기에 단호하게 도전해온 나라가 있다. 《세계화》의 물결에도 휩쓸리지 않고 미국이 바라는 《변화》의 기미도 없으며 오직 자기가 선택한 자주와 정의, 사회주의의 한길로 꾀꿨이 나아가는 조선이다. 인민의 국사의 중심에 있고 자기의 힘으로 인민의 꿈과 리상이 실현되는 조선식리원을 일떠세워가는 경이적인 현실은 세계의 많은 나라들로 부터 놀라움과 동경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미국이 강요하는 암흑의 세계질서에 끝없이 도전하고 자

주와 정의, 선군의 힘으로 그것을 세차게 뒤흔들어놓는 나라, 정의로운 손에 자위의 핵을 틀어쥐여 핵무기독점에 의한 미국의 세계지배질서에 파멸구를 낸 조선의 위력에 지금 미국은 불안과 위구를 감추지 못하고있다.

조선은 미국이 적대시압살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침략전쟁의 사소한 불꽃이라도 튀긴다면 남조선감정 미군과 태평양 지역미군은 물론 미본토도 불바다에 잠겼다고 이미 선언하였다. 그것은 빈말이 아니라 반미대결전의 종국적승리를 준비해가는 공화국의 드림없는 최후결전의지이다.

세상에 나라가 많아도 횡포한 미국과 단독으로 맞서 제국주의우두머리의 간담을 이렇게 서늘케 하는 나라가 조선 아니고 또 어디에 있는가.

조선이 침략과 불의에 정면으로 맞서 자주와 정의, 인류의 리상향을 건설해가는 자주와 존엄의 나라라면 미국은 인간세상의 공기를 흐리고 행성의 평온과 인류의 미래를 해치는 악의 제국이다.

이 세상 가장 불의한 악의

본산은 미국이다. 미국은 뿌리부터 썩은 나라이다. 침략과 약탈로 생겨나고 그것으로 비대한 미국의 력사는 퍼비린 최악의 력사이고 세계도 처에서는 물론 자국민들에게서도 저주와 배격을 받는 미국은 인류력사상 가장 추악하고 불의하며 너절한 나라이다.

이런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비정상이다. 망해야 하고 망하게 되어있는 것은 미국의 퍼지 못할 21세기의 운명이다.

일찌기 미국의 마크 트웨인은 《성조기의 흰줄은 검은 빛으로 칠해야 하며 별들은 해골들로 들썩 포개놓은 뼈다귀들로 바뀌어져야 할것이다.》라고 정당하게 지적하였었다.

미국인들조차 혐오에 차 미국없는 자유와 평화의 행성을 갈구하게 만든 이런 썩은 나라, 뿌리와 줄기도 썩고 가지와 잎도 누렇게 죽어가는 이런 나라는 차라리 없어지는것이 마땅하다. 침략과 살인의 원흉인 미국의 종국적파멸은 시간문제이다.

오바마는 조선이 망해야 한다고 녀두리를 꿰치었지만 선량한 세인과 력사는 미국이 빨리 망해야 한다고 소리치고 있다.

허성철

미국에서 관타나모미해군기지감옥 폐쇄를 요구하여 시위



돈 끼호테를 련상케 하는 미국의 대조선제재

사회주의의 보루인 공화국에 대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제재가 해를 거듭할수록 확대되고 있다. 얼마전에도 미국은 《쏘니 픽처스》 영화제작 보급사에 대한 싸이버공격사건을 공화국과 억지로 련결시키고 그것을 구실로 《추가제재》를 가할데 대한 대통령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봉쇄를 이기는 정신력

《제재》론의 제창자들이 알아야 할것은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이 백절불굴의 정신력을 가진 사상적의 강자, 정신력의 강자라는 사실이다.

주체사상을 체질화한 이들은 백두의 혁명정신,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무장할 때 뚫지 못할 난관이란 없으며 닭알에 사상을 채우면 바위도 깰수 있다고 확신하고있다.

공화국의 전력사를 관통하는것은 백두의 혁명정신, 자력갱생의 정신이다. 백두밀림에서 창조된 언길폭탄정신, 초왕창과 처창의 결사항전의 정신,

자립경제에 비약의 나래들치다

중국의 한 인터넷신 높은 성장》이라는 글에 문은 《조선, 제재에도

그때놓고 그러한 고통은 《체제상우의 결과》이며 《개혁, 개방》을 하지 않는 한 계속 악화될것이라고 외곡선전하고있다.

이러한 제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가?

얼마전 공화국은 외무성대변인 대담을 통하여 미국의 비렬한 경제제재가 우리를 약화시킨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으며 미국이 이것을 알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경고하였다. 불행하게도 미국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있다. 미국의 모든 시행착오는 여기로부터 출발하고있다.

《조선의 산에는 엄청난 값어치의 지하자원이 풍부하게 깔려있다. 남조선언론에 의하면 광물자원은 전국토의 약 80%를 차지하는 넓은 지역에 분산되어있다고 한다. 조선은 200개이상의 광물을 상당량 보유하고있으며 그 가운데 세계에서 10위이내의 광물은 마그네사이트, 탕크스텐, 흑연, 금, 폴리브렌이다. 마그네사이트는 세계에서 두번째, 탕크스텐은 여섯번째로 많다. 조선의 광물가치총액을 7조~10조US\$로 추정하는 자료도 있다. 그러나 이 추정치는 조선에서 수조US\$의 가치를 가진 세계최대의 희토류가 발견되기 전이다.》

시간은 누구편에

《조선의 산에는 엄청난 값어치의 지하자원이 풍부하게 깔려있다. 남조선언론에 의하면 광물자원은 전국토의 약 80%를 차지하는 넓은 지역에 분산되어있다고 한다. 조선은 200개이상의 광물을 상당량 보유하고있으며 그 가운데 세계에서 10위이내의 광물은 마그네사이트, 탕크스텐, 흑연, 금, 폴리브렌이다. 마그네사이트는 세계에서 두번째, 탕크스텐은 여섯번째로 많다. 조선의 광물가치총액을 7조~10조US\$로 추정하는 자료도 있다. 그러나 이 추정치는 조선에서 수조US\$의 가치를 가진 세계최대의 희토류가 발견되기 전이다.》

어느 한 나라 언론에 실린 글이다. 공화국의 무

예상을 넘어 새로운 높이에 도달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 최근 예산자료를 통해 조선이 2배의 경제성장을 달성했거나 거의 달성해가고있음을 엿볼수 있다. 1990년대를 이어 지금도 미국주도의 제재가 계속되고있는 약조건에서 그러한 변화는 놀라운것이다.》라고 했지만 사실 어떤 정황에서도 자체로 살아나갈수 있는 토대가 갖추어진 공화국에서 그것은 조금도 이상할것이 없다.

수십년전에 공화국은 적대세력들의 경제봉쇄와 세계적인 경제파동에도 끄떡하지 않는 다방면적이며 종합적인 자립경제를 건설해놓았다.

공화국은 과학기술을 앞세워 모든 부문을 발전시켜나가고있다. 자립경제라는 롱마에 비약의 날개가 달린셈이다.

지난해에 90건의 국가적의의를 가지는 과학기술성과들이 도입된 사실만 놓고도 공화국이 자체의 힘으로 얼마든지 만년을 헤치고 경제강국의 활로를 열어나갈수 있음을 알수 있다. 이러한 공화국에 제재가 어떤 《효과》를 볼수 있었는지...

시대는 누구편에

《조선의 산에는 엄청난 값어치의 지하자원이 풍부하게 깔려있다. 남조선언론에 의하면 광물자원은 전국토의 약 80%를 차지하는 넓은 지역에 분산되어있다고 한다. 조선은 200개이상의 광물을 상당량 보유하고있으며 그 가운데 세계에서 10위이내의 광물은 마그네사이트, 탕크스텐, 흑연, 금, 폴리브렌이다. 마그네사이트는 세계에서 두번째, 탕크스텐은 여섯번째로 많다. 조선의 광물가치총액을 7조~10조US\$로 추정하는 자료도 있다. 그러나 이 추정치는 조선에서 수조US\$의 가치를 가진 세계최대의 희토류가 발견되기 전이다.》

어느 한 나라 언론에 실린 글이다. 공화국의 무

공무진한 경제적잠재력을 보여주는 또 다른 측면이라고 볼수 있었다.

미국이 《물결없는》 제재와 봉쇄의 그물을 쳐놓고 《기다리고》 있지만 결과는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고있다.

제반 사실은 지금도 그렇고 전망적으로도 제재와 고립으로 공화국을 질식시킬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홍범식



고삐를 끈 군국주의마차가 양을 총착점은

세상에 일본만큼 《평화》에 대해 입이 닳도록 말하는 나라도 없을것이다.

새해에 들어와서만도 현 일본당국자는 년두기 자회견이라는데서 《일본은 전후 오로지 평화국가의 길을 걸어왔다. 평화국가로서의 걸음은 앞으로도 결코 달라지지 않을것이다.》라고 떠들었다.

하다면 《평화》를 떠드는 일본이 행동은 어떻게 하고있는가.

일본정부는 지난해 헌법해석을 바꾸어 《자위대》의 《집단적자위권》 행사추진을 공언한데 이어 올해에 들어와 무력증강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이미 일본류상 《자위대》는 최신전쟁장비들을 갖춘 지상실전무력으로, 해상 《자위대》는 보다 현대적인 함선들을 가진 해상작전무력으로, 항공 《자위대》는 최신형비행기들을 보유한 공중기동타격무력으로 자라났고 지어 핵무기와 항공포함 보유까지 기도하고있다.

그런데도 일본내각은 2015회계년도 정부예산안에서 420억US\$에 달하는 최대규모의 국방예산을 승인하였다.

이것은 3년간에 걸치는 련속적인 증대를 의미하며 력사상 가장 큰 국방예산으로 된다고 한다.

일본은 이러한 국방예산으로 신형수송기 《오스프레이》, 외딴섬상륙이 가능한 수륙양용차, 《F-35》 전투기, 잠수함탐색용비행기, 구축함과 상륙수단 등을 구입하며 미국과의 미사일방위 체계개발도 다그치려 한다. 최근에는 조기경보기 《E-2D》와 고도기술 무인기인 《RQ-4 글로벌 호크》 정찰기를 미군수독점체인 노스로프그라만회사에 주문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무장장비들이 《방어》용이 아니라 해외침략을 위한 정보수집과 감시정찰, 공격용무기라는것은 누구도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다.

일본이 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에 거처장스러운 《무기수출3원칙》을 휴지통에 쫓아버리고 무기수출확장정책에 광분하고있는것도 스쳐지날 문제가 아니다.

현 일본정부는 지난해 4월에 각료회의라는데서 무기수출금지를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5월에는 자국이 국제군수시장에 진입한다는것을 세상에 정식 선포하였다.

하여 미쯔비시중공업, 히다찌, 후지 등 일본군수기업들이 처음으로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된 무기전람회에 참가하였는가 하면 내놓고 현대적인 첨단무기의 개발과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지금 일본이 어느 나라와 망크기판을 공동으로 개발한다, 또 어떤 나라로부터 잠수함전조를 주문받는다 어떤다 하며 부산을 피우고있는것 역시 그 하나의 실례이다.

오늘 인류는 세계의 공고한 안정과 평화를 지향하고있으며 지구상에는 일본을 침략하려는 나라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나라도 없다.

자본주의세계에서 미국 다음가는 방대한 전투무력을 가지고있는 일본이 그것도 성차지 않아 무력증강정책에 열을 올리는 것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군사적패권을 노리고 있는것을 나타내려 한다. 고박에 달리 볼수 없다. 십나라 일본은 지난날 《대동아공영권》을 실현하려는 망상말에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수많은 나라에 대한 침략과 약탈

로 헤아릴수 없는 반인륜적범죄를 저지른 전범국이다.

하나 일본은 엄청난 자기의 범죄행위에 대한 반성이나 사죄배상은커녕 집요하게 그 책임을 회피하고있다.

일본은 70년전의 패망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 후안무치한 력사의 곡늘음으로 자기의 침략적과거를 은폐하고있으며 세계 진보적인류의 한결같은 반대배격에도 불구하고 전범자들의 위패가 있는 야스구니진자에 대한 계속되는 참배놀음으로 군국주의향수를 불러 일으키고있다.

지난 9일에는 일본정부가 내각회의에서 《국민이나 유족다수가 야스구니진자를 우리 나라 전몰자추도의 중심적시설이라고 생각하며 나라를 대표하는 처지에 있는자가 추도하는것을 바라고있다.》는 국회답변서를 결정하였다. 이러한것은 라나는 새 세대들과 일본인민들에게 군국주의부활을 고취하고 해외침략을 정당화하는 위험한 행위이다.

일본은 인류의 커다란 재난당어리로 변해가고있으며 동북아시아에는 또 다시 전쟁의 검은구름이 무겁게 밀려오고있다.

고삐를 끈 군국주의마차가 달릴 길은 해외침략이며 그 총착점은 다시는 일본이 속수무직 못할 영원한 파멸뿐이다.

침략과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로 얼룩진 자기의 지난 죄과를 반성할 대신 력사를 외곡하고 《침략의 정의는 정해져있지 않다.》는 망발을 늘어놓으며 군국주의제침야망에 달이 뜬 일본을 국제사회는 예리하게 주시하고있다.

본사기자 서 희

민족의 자랑, 인류의 재부 - 《아리랑》

우리 겨레가 사랑하고 널리 부르는 조선민요 《아리랑》이 세계비물질문화유산으로 자리잡았다.

대표적인 인류의 비물질문화유산

지난해 11월말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유네스코 비물질문화유산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 제9차회의에서 공화국이 제기한 조선민요 《아리랑》을 《인류의 비물질 문화유산 대표적 목록》에 등록하는 문제를 심의하였다. 협약당사국 대표들의 3분의 2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심의에서 조선민요 《아리랑》이 일찌간 지지와 찬동속에 《인류의 비물질문화유산 대표적 목록》에 등록되었다.

많은 민족유산들 가운데서 유구성과 전통에 있어서 인류사적인 의의를 가지는 특출한 유산들이 속하는 세계비물질문화유산에 조선민요 《아리랑》이 등록된 소식은 인터넷 등을 통해 널리 보도되었다.

유네스코는 조선민요 《아리랑》을 세계유산으로 등록하면서 《(아리랑)은 가정과 친우들, 집단뿐아

니라 중요계기와 명절들을 비롯한 다양한 계기에 불리워지고있는 대중적민요이다. 《아리랑》은 구두로 전해지며 재창조되는 과정을 통하여 수많은 전통형식과 관현악, 현대음악형식으로 존재하고있다.》고 소개했다.

미국의 VOA통신은 조선의 5살 난 어린이가 《(아리랑)이 제일 좋아요》라고 뽀뽀뽀하듯 쓴 글이 정말 좋았다고 하였는가 하면 어느 한 나라의 심사원은 언제인가 조선 예술단이 연주하는 유순하고 부드러운 《아리랑》 선율을 들으며 받았던 감동이 아직도 생생하다. 이번에 《아리랑》 공연까지 보았다면 더 좋았을것이라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민요 《아리랑》이 국내의 첫 세계비물질문화유산으로 된것은 우리 민족사의 유구성과 우수한 문화, 공화국의 민족유산 보호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자랑이 아닐수 없다.

《조선민족의 쌀과도 같은 아리랑》

민요 《아리랑》은 14세기말에 벌써 조선반도의 서부지방에서 널리 불려왔다. 이 나날 많은 지방적변종들이 생겨났다. 평안남도의 《서도아리랑》, 황해남도의 《해주아리랑》, 강원도의 《강원아리랑》,

자강도의 《전천아리랑》, 함경북도의 《은성아리랑》, 전라남도의 《진도아리랑》, 경상남도의 《밀양아리랑》, 남강원도의 《정선아리랑》 등 20세기 전반기까지 36개의 변종이 알려졌다.

《아리랑》에 대한 악보와 기록자료는 19세기에 에취비 헐버트(미국인)가 영문잡지에 소개한 《아리랑》이다. 잡지에서 필자는 조선에서 생활하면서 자신이 직접 듣고 채보한 《아리랑》을 《조선의 노래》라는 곡명으로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이 노래는 언제 어디서나 들을수 있었다. 즉흥곡의 명수인 조선인민에 의해 수많은 즉흥곡으로 대체되기때문에 그 가락이 몇종이 되는지 알수 없으나 후렴만은 변하지 않는다. 조선사람에게 있어서 《아리랑》은 쌀과도 같다.》고 썼다.

《황성신문》(1901년 11월 13일부)도 《(아리랑)을 남여가 다루어 부

화해와 단합을 추동하는 노래

민요 《아리랑》은 단순히 사랑과 리별의 노래가 아니라 겨레의 혈맥을 하나로 이어주고 민족의 넋과 숨결이 깃들어있는 심장의 메아리이다.

오랜 력사적기간 《아리랑》을 부르며 한강도에서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겨레는 환희의 6.15시대에 각종 북남행사들에서 손잡고 이 노래를 부르며 민족도, 력사도, 문화도, 언어도 하나임을 절절히 느끼었다.

지난 2000년 오스트랄리아에서 진행된 제27차 올림픽경기대회 개막식장에 북남의 체육인들이

르고 상하가 어울려 부르 고있다. 지어 들에서 놀다가도 부를뿐아니라 연회석상에서도 소고를 등등 울리며 부르던 저도모르게 춤을 추고 발을 구른다.》고 하면서 어찌서 그 노래를 즐기는 사람이 많으며 부르는 사람이 많을 것인가고 썼다.

오랜 기간 부단히 발전해오면서 지방별로 고착된 《아리랑》은 1926년에 창작된 무성영화 《아리랑》의 주제가로 나오이후부터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노래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지난날 우리 겨레가 슬픔을 안고 부르던 눈물과 비탄의 《아리랑》이 오늘 인민의 꿈과 리상이 꽃피는 공화국에서 행복과 기쁨의 《아리랑》으로 개화발전하고있다.

《아리랑》을 부르며 공동입장한 사실, 민족통일대추진행사장들에서 북과 남, 해외의 가수들이 분렬의 아픔과 통일의 지향을 안고 《아리랑》을 절절히 부른 사실들은 우리는 둘로 갈라져 살수 없는 하나의 민족임을 세상에 파시하고있다.

오랜 기간 기쁨과 슬픔도 함께 하며 겨레의 마음의 길동무였던 《아리랑》, 오늘은 분렬을 끝장내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며 통일으로 추동하는 노래로 계속 울리고있다.

본사기자



아 리 랑

- 1.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고개로 넘어 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 2.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고개로 넘어 간다
- 3.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고개로 넘어 간다
저기 저 산이 백두산이라지
동지설달에도 꽃만 핀다

《아리랑》전설

옛날 한 마을에 김좌수라는 지주집에서 리랑이라고 하는 총각과 성부라고 하는 처녀가 머슴을 살고있었다. 어느해 혹심한 가물로 흉년이 들어 농민들은 식량난으로 아우는 소작인들에게 얼마 안되는 종곡마저 모조리 빼앗아갔다.

이에 격분한 농민들이 폭동을 일으켰는데 리랑과 성부도 이에 참가하였다. 그러나 관군의 진압으로 마을은 삼시에 농민들의 피로 물들었다.

류혈적인 참변에서 살 아난 리랑과 성부는 수락산속에 들어가 백년약을 먹고 행복하게 살았다. 그후 리랑은 억울하게 죽은 마을사람들의 원수를 갚을 결심을 품고 싸울터로 떠나갔다. 홀로 남은 성부는 매일아침 샘터에 나가 물을 길고는 나무가지를 하나씩 꺾어 마당에 꽂아놓고 그것을 하여 보면서 사랑하는 남편이 돌아올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때 백상도라는 토호가 사냥을 왔다가 성부를 보게 되었다. 성부의 아릿다운 미모에 끌린 백상도는 그를 탐내어 매일 같이 찾아와 유혹하려 들었다.

어느날 그토록 기다리던 리랑이 싸움터에 나갔다가 약질지주 김좌수의 첩단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성부는 너무도 기뻐 기장쌀로 밥을 짓고 도라지와 버섯으로 성의껏 저녁상을 차려놓았다. 이때 백상도가 야욕을 채울 욕심으로 성부의 집으로 들어왔다. 깊은 산중에 들어와 숨어사는 집에 난데없는 사람이 들어서자 성부에 대한 의심을 감출수 없었던 리랑은 칼을 뽑아 백상도를 죽여버리고 집을 뛰쳐나갔다.

《아. 리랑!》 성부는 울먹이며 리랑을 따라나섰으나 리랑은 단숨에 고개를 넘어가고 보이지 않았다. 산속에 홀로 남은 성부는 자신의 청백함을 몰라주는 리랑을 원망하면서 《아-리랑! 아-리랑!》하고 목청껏 불렀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

리랑이 넘어간 고개를 하염없이 바라보며 밤새도록 노래를 부르던 성부는 가슴에 칼을 박고 쓰러졌다. 한편 결집에 집을 뛰쳐나갔다가 성부가 자기를 배반할 녀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발길을 돌린 리랑은 쓰러진 성부를 발견하였다. 그는 성부를 부여안고 통곡하다가 그의 시체를 고개마루에 묻고 어디론가 정처없이 떠나가버렸다. 그 후 사람들은 성부의 무덤이 있는 고개를 《아리랑고개》로 불렀고 성에 난데없는 사람이 들어서자 성부에 대한 의심을 감출수 없었던 리랑은 칼을 뽑아 백상도를 죽여버리고 집을 뛰쳐나갔다.

본사기자

《아리랑》, 국가의 관심속에 널리 장려

우리 나라에서 민요 《아리랑》을 누구나 사랑하며 즐겨 부르 고있다. 가정에서나 이웃, 친구들과 파도 부르고 어린이들은 부모와 학교, 기타 사회적환경을 통해 전통민요인 《아리랑》을 배우며 성장하고있다.

해방전에는 민요 《아리랑》에 대한 보호사업이 자연발생적으로 진행되었지만 1947년 4월 국

가의 관심과 후원속에 처음으로 《조선고전악연구소》를 중심으로 《아리랑》에 대한 발굴과 보호사업이 진행되었다.

1966년에 《아리랑》 노래들을 기본으로 하는 《조선가요곡집》과 많은 도서, 논문들이 문서화되었고 1970년에는 조선음악가동맹 중앙위원회 민요연구실이 창립되고 지방별, 종류별 《아리랑》

에 대한 보호 및 전달체계가 완비되었다.

《아리랑》은 김원균 명칭평양음악대학과 각도예술학원을 비롯한 예술교육기관들에서 중요교육항목으로 선정되었으며 수만명이 출연하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이 내외의 큰 관심속에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전문예술단체들에서 민

요 《아리랑》을 교향곡, 음악무용곡으로 형상하고 지방아리랑보호회들에서 자기 지방의 아리랑변종을 부르며 보존, 전달해가고있다.

국가적인 비물질민족유산보호계획에 의한 교육활동도 《아리랑》의 생명력을 잇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 해마다 《아리랑》과 관련한 문화행사가 김원균명칭평

양음악대학의 주최로 1~2차 열리고 2012년 9월에 《아리랑의 전통과 혁신》이라는 주제로 《아리랑》음악회와 연구토론회가 진행되어 《아리랑》의 전달과 장려에 적극 기여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아리랑》에 대한 보호사업은 전인민적 관심과 국가의 재정적, 물질적지원속에 적극 진행되고있다.

민족유산보호지도국 비물질유산처 부처장 박무송

사화 최영장군의 벼루 (6)

글 정의선, 그림 김윤일

그곳을 파보니 바닥에 청석을 깔고 있었다. 그 청석판을 들어냈더니 유지로 밀봉을 한 오지항아리가 나타났다. 문경운은 환성을 올렸다. 그리고 서둘러 그 항아리의 밀봉한것을 헤치고 보니 그 항아리안에 두툼한 책 한권이 우에 놓여있었고 그아래에 붓통과 연적, 붓들이 있고 맨 아래에 그렇게 찾던 벼루가 있었다. 문경운은 큰 보물을 얻은듯 누가 볼세라 그 항아리를 싸들고 집에 달려와 집대문을 닫아걸고 벼루부터 살펴보았다.

《견황금피 넘잡석피 (황금덩이 보기를 돌덩어리처럼 생각한다.)란 여덟글자가 뚜렷이 새겨졌고 정몽주가 말해준대로 오른쪽에는 소나무와 그우에 앉은 학을, 왼쪽에는 굵은 참대숲에서 호랑이가 나오는 부각상이 새겨져있었다. 벼루뒤에는 《11대조 개국공신 최준용, 6대조 수태보 문하평장사 최석, 5대조 중서시랑 평장사 최유청, 조부 지부밀직사사 최응, 부 사헌 규정 최원직》이라고 다섯명의 선조들의 판직과 이름이 새겨져있었다.

을 만지듯 쓰다듬다가 생각난듯 누가 볼세라 그것을 정히 써서 자기 장농에 건사하고 거기에 있던 책을 펼쳐들었다. 그 책을 읽던 문경운은 또 한번 환성을 올렸다. 그 책은 최영장군의 일기였다. 장군은 일기를 쓰면서 그날의 사실을 누구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썼다. 그 한 대목을 보니 《1381년 5월 을사일. 오늘 나는 외람되게도 상감께 (기근이 자주 들어 백성들이 살수 없는 형편이며 또 방금 농사시절인데 분별없이 유람을 즐기며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은 옳지 않소이다.)

라고 간헐더니 상감께서는 《우리 선조 충수왕도 역시 유람을 즐기셨는데 나라고 유람을 할수 없는가.》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또 《선왕 때에는 백성이 편안하고



시절도 풍년이여서 할수 있었으나 오늘에 있어서 먼저 어찌 이것을 우려하지 않고 다만 가정살림에

했다.》 이런 기록을 비롯하여 임금에게 간한 글도 많았는데 나라고 유람을 할수 없는가.》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또 《선왕 때에는 백성이 편안하고

만 관심하는가.》라고 말 해서 《신기한 벼루》라고 제목을 달고 그 벼루가 신기한 조화를 부려 최영장군을 크게 도와주었다는 식으로 글을 썼다. 그리하여 최영장군의 애국애민의 품모와 용맹성을 서술하였다.

문경운은 최영장군의 벼루를 어떻게 처리할가 하는것을 두고 여러모로 생각하였다. 누구와 의논할 사람도 없었다. 그는 생각에 벼루를 최영장군의 무덤에 갖다 묻어주는것이 옳겠다고 여기고 최영장군의 사람됨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 문경운은 정몽주가 그 벼루를 통하여 최영장군의 품모를 후세사람들에게 알려줌이 좋겠다고 한 말을 되새기며 최영장군의 벼루와 일기를 결합시킨 글을 써서 후세에 물려주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

(끝)